

외교부 :

유럽 ,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해야

대만 외사부문의 관계자가 유럽을 무단 방문하는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측의 핵심이익중의 핵심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중국과 유럽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림검은 중국측은 수교국이 대만 지역과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관련 왕래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림검은 유럽측은 응당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지켜 대만당국과 진행하는 관련 왕래를 중단하고 ‘대만독립’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림검은 대만당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또는 ‘두 개 중국’을 조작하고 ‘대만독립’ 추진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출로가 없다고 엄숙히 지적했다.

/ 국제방송

주유엔 중국대사 :

중동 문제에서의 안보리 행동 지지

유엔 주재 중국대사 부총은 18일 중동 문제 관련 안전보장리사회 고위급회의에서 현재의 중동 정세는 루란지위 (累卵, 여러개의 알을 쌓

아놓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라면서 모든 회원국이 일치단결해 안보리가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 신화넷

즉석 반격 ! 경상, 미국 비판



현시시간으로 1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로씨야—우크라이나 충돌 폭발 1,000일을 두고 고위급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부 경상은 중국을 비방하는 미국 대표의 발언을 즉석에서 반박했다. “미국 동료들이 발언하기 전에 당면 정세를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폭발하고 지금까지 지속된 원인은 미국과 큰 관

계가 있다. 앞으로 조속한 휴전이 가능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 부분 미국의 태도와 표현에 달려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확대하고 전쟁을 연장하며 기회를 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자체의 지연 전략을 추진하려는 획책은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향향특별행정구정부 미국 강력 규탄

“이른바 ‘보고서’ 통해 특구 사무 관여”

20일, 향향특별행정구정부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낸 이른바 연례보고서가 향향특별행정구 각 분야의 상황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모독·먹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향향특별행정구정부 대변인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정치를 제멋대로 법치 위에 놓고 거둬 이른바 ‘보고서’를 통해 향향특구 사무에 관

여하는 것에 대해 특별행정구정부는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구정부는 미국이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따르며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향향 사무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신화넷

미국, 가자지구 휴전결의안 초안 재차 부결



11월 17일, 팔레스티나 어린이가 가자지구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물자를 찾고 있다.

/ 환구넷

11월 20일,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 로버트 우드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팔레스티나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 표결할 때 재차 반대표를 던졌다. 안보리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인 휴전을 즉각 조건없이 달성하

고 억류된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10개 비상임리사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중 14개가 찬성표를 던지고 상임리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초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신화넷

전 유엔 사무차장 :

중국 , 글로벌 녹색 전환에 꼭 필요한 국가



13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신에너지 발전에 관한 중국 부대 행사가 열렸다. / 신화넷

전 유엔 사무부총장 에릭 솔하임이 중국의 녹색에너지 전환을 높이 평가했다. 솔하임은 최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총회(COP29) 기간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강력한 녹색생산력은 세계를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전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라고 전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평균 전력 비용은 각각 총 60%, 80% 이상 감소했다. 그중 중국의 혁신·제조·공정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하임은 중국이 세계 선두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녹색 발전에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많은 국가의 국내총생산 수십 배에 달하는 자금을 녹색 발전에 투자했다. 또한 태양·풍력·수력 에너지,

축전지, 전기차 등 핵심 녹색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솔하임은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대량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전기 자가용·택시·버스 덕분에 도시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적은 소음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대일로’ 녹색발전국제연맹 부리사장을 맡고 있는 솔하임은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창의를 녹색 발전 리

방안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이 창의는 많은 글로벌 녹색 프로젝트의 매개체가 됐으며 태양에너지 및 풍력·수력 발전 등 프로젝트가 많은 국가에 녹색희망을 건설하고 국가 녹색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이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까지 42개 발전도상국과 53건의 기후변화 남남협력 광해각서를 체결했다.

/ 신화넷

인기 폭발 ! 중의 치료법에 매료된 브라질인들



침구, 부항, 마사지 등 중의 치료법이 중국과 1만 8,000여기로 떨어진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브라질인들은 침구 치료를 받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브라질 부통령도 중의 리론과 침구에 대해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침구를 정통한 브라질 부통령’은 미니블로그(微博)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했다. 브라질 부통령 알클민은 중국 방문 시 자신의 침구 기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브라질정부는 중의 치료법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브라질 보건부가 중의 치료법을 공공의료체계에 포함 시킴으로써 중의는 많은 브라질인들의 새로운 선택이 되고 있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 3월 22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1회 라틴아메리카중의약대회 및 제2회 브라질중의약국제대회에서 한 중의(가운데)가 족부 반사(反射)요법을 강의하고 있다.

/ 신화넷

인도네시아, 수도를 누산타라로 이전

자카르다는 ‘특별구’로 변경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안내도

/ 자료사진



8월 13일 찍은, 건설중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일경. (드론사진)

/ 신화넷

인도네시아 국회는 19일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지위를 특별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 카디르는 국회 전체회의후 “자카르타는 더 이상 수도가 아닌 특별구”라며 “우리는

수도를 이미 누산타라(努山塔拉)로 옮겼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 부장 카르나피안은 자카르타는 앞으로 경제·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국가 기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인 누산타라는 칼리만탄주 파세르에 위치해있으며 수도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 명년초부터 공무원들을 이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신수도 건설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5단계에 걸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45년 완공될 예정으로 완공후 상주인구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신화넷